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최상미* · 전재현** · 정무성***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Welfare Program from a Social Inclusion Perspective among Low Income People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Cultural Accessibility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

Sangmi Choi* · Jaehyeon Jeon** · Moosung Chung***

요약 :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던 기존의 ‘빈곤’에 대한 논의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전반적 측면을 포괄하는 사회통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연구도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가 ‘빈곤극복’이 아닌 ‘사회통합’을 지향해야한다는 데에 동의하며,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이용기간과 이용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사회통합감이 정적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에서 정서적 역량강화와 문화접근성의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복지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13명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기간, 문화접근성, 정서적 역량강화와 사회통합감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은 직접적으로보다는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를 매개로 주관적 사회통합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저소득 이용자의 정서적 역량강화와 문화여가 향유에의 접근성 확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정서적 역량강화와 문화접근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자가 인지하는 사회통합감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도 이들의 문화여가향유 기회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 문화복지, 문화접근성, 정서적 역량강화, 주관적 사회통합감, 사회적 배제

ABSTRACT : The discussion of ‘poverty’, focusing mostly on economic aspect, has been expanded to social inclusion including various aspects of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With the growing discussion on social inclusion, the importance of cultural welfare policy has been increased as a tool to improve social inclusion of socially excluded peopl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ultural welfare programs on social inclusion mediating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cultural accessibilit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findings from 413 low-income people using cultural vouchers in South Korea support the positive indirect impact of using cultural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사과정(Ph.D.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mx307@naver.com, Tel: 02-2061-1367)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welfare programs on social inclusion via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cultural accessibility. This implie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cultural programs to expand opportunities to enjoy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for the social inclusion of low-income or vulnerable people.

Key Words : Cultural Welfare Programs, Cultural Accessibility, Psychological Empowerment, Perceived Social Inclusion, Social Exclusion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최근 복지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문화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이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로 사회에 더 통합되었다고 인지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사회통합감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이르는 경로를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 강화’를 통해 탐구한다.

‘사회통합’은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둔 전통적 빈곤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한 대안적 개념으로(강신욱·김안나, 2005), 사회통합 담론에서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참여, 정치적 활동, 문화여가 활동 및 기회 참여가 제한된다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는 포괄적 관점에 근거한다(Robinson and Oppenheim, 1998; Burchardt et al., 2002; Bradshaw et al., 2000; 문진영, 2004). 이러한 사회통합, 사회적 배제 개념은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져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 사회적 배제 개념이 소개된 이래 관심이 증가해왔다. 국내의 사회통합·사회적 배제 관련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 담론의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심창학, 2001, 2013; 문진영, 2004; 강

신욱·김안나, 2005), 한국형 사회적 배제 개념화 및 측정도구 개발(강신욱·김안나, 2005; 김안나 외, 2008),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 및 현황(윤성호, 2005; 김교성·노혜진, 2008; 장지연·양수경, 2007; 배미애, 2007) 등을 주요 주제로 이루어져왔다.

포괄적 관점에서 경제적 빈곤 극복이 아닌 사회통합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여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복지 정책도 사회적 배제·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유사하게, 정무성 외(2014)는 전통적 소득보장만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다차원적인 배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이유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사회적 배제 담론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빈곤 극복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경제적 접근에서 나아가 포괄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개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빈곤,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한다는 점, 셋째, 문화적 자본의 시각에서 볼 때, 개인의 문화예술향유는 개인의 경제적 배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넷째, 문화예술향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구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기존 사회적 배제 및 사회통합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배제 혹은 통합되었다고 인지하는지에 초점을 둔 미시적 접근에 근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사회통합·배제 담론은 대체로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통합 혹은 배제의 객관적 수준을 측정해내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도 각 개인마다 인지하는 사회통합·배제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무시되어왔다. 이에 이 연구는 개인적 관점에서, 복지정책의 하나인 문화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이용자의 사회통합이라고 보고, 저소득층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정서적 역량강화와 문화접근성 향상을 매개로 사회통합감 향상에 기여한다고 가정한 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진다. 먼저 문화향유권이라는 권리보장 측면에서 논의되어 오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정책의 목표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논함으로써 빈곤, 교육,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영역과의 통합적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이루어지던 사회통합 담론을 미시적·개인적 차원으로 확대하는 의미를 가진다.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통합에의 기여를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으로 제안한 바 있다(Catterall, 2009; Gonzales et al., 2010; Israel, 2009; 최종혁 외, 2010; 유영주, 2013; 서우석·양효석, 2012). Gonzales et al.(2010)은 노인집단에 대한 미술연가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사회참여활동 향상에 기여했음을 실증적으로 보고했다. Isral(2009)도 청소년 대상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참여학생의 사회참여를 촉진시켰음을 발견하였다. 유사하게 Catterall(2009)은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 향유 확대가 이들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정치활동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과 주관적 사회통합감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역량강화와 문화접근성을 매개변수로 고려한다. 먼저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을 향상시켜 사회통합감에 기여한다고 고려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2013)는 문화소외계층을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소외계층으로 구분하고,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 혹은 경제적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 또한 같은 맥락에서 문화접근성을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적, 경제적, 물리적, 경험적 접근성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경제적·물리적·정보적·경험적 측면에서 이들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사회통합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정서적 역량강화를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매개하는 또 다른 변수로 고려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일관되게 문화예술 향유가 이용자에게 긍정적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해왔다.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르츠부(DCMS)는 예술위원회(ACE)와 함께 문화스포츠 예술프로그램(CASE, the Culture and Sport Evidence Program)에의 참여 효과를 3년간의 추적 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향유가 이용자의 주관적 안녕(SWB)에 기여함을 증명하였다. 국내에서도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가 정서적 안정·자존감(이성희, 2013; 오승철, 2008; 양혜원, 2014), 스트레스 감소(김가은, 2012)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여가활동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 중 다수가 노인, 청소년,

장애인 특정 인구 집단 중 하나에 집중하여 문화여가활동이 그들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다양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증명하였다. 이에 비해 이 연구는 일차적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의 영향을 검토한다는 점, 주관적 인지에 근거한 사회통합감을 사용하여 사회통합 논의를 확대한다는 점, 문화여가활동의 결과 요인으로 각각 논의되어 온 사회통합, 긍정적 심리 상태, 문화접근성을 하나의 연구모델로 설정하고 검증하여 논의를 확대·정교화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문헌고찰

1.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과 사회통합

문화복지란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정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용호성, 2012). ‘문화복지’는 1980년대 ‘복지사회의 실현’을 국정 기본방향으로 정하면서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 1989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생활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문화가 복지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96년 세계화 정책 선언 이후 삶의 질 세계화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정책을 전개하면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창의적 문화복지국가’를, 참여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문화권 보호’를 정부의 문화정책 기본구도로 설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를 추진하

였으며(최종혁 외, 2010), 현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정책 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문화복지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복지담론의 전환과 더불어,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기획·확대하는 동시에 기존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경제적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에서 지리적·사회적 문화소외계층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¹⁾.

문화복지라는 용어는 정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문화예술학계로 그 논의가 이어져 대체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오다가(구혜영, 2004; 강호진, 2004; 김민정·송주미, 2004), 최근에는 사회복지계까지 그 논의가 확대되어 왔다(심창학, 2013; 조남경, 2013; 최옥채, 2007; 최종혁 외, 2010; 최종혁 외, 2015). 양혜원(2014)은 문화복지는 서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나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개념과 문화적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주로 문화예술계와 사회복지계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입 대상과 목적’ 측면에 사회복지와 교집합을 가지는 한편, 가치제, 경험제, 양적 외부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문화재를 다룸으로써 ‘개입 내용’의 측면에서 문화예술과 교집합을 가지기 때문이다.

정무성 외(2014)는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처음에는 이용권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다가 이용기

1) 문화체육관광부(2013)는 문화소외계층을 경제적 소외계층, 사회적 소외계층과 지리적 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소외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임대주택거주자를 포함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은 장애인, 노인 등 시설 거주자 및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다문화 가정,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의미한다. 지리적 소외계층은 농어촌, 도서(섬), 산간벽지 및 공단 지역주민을 포함한다.

간이 축적됨에 따라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이용 욕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스스로 찾아서 이용하게 되고 자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관람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다. 이는 경험재민 문화예술의 특징을 보여주고 문화복지 정책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복지사업 중 현재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이 이용자가 인지하는 사회통합감에 미친 영향과 그 영향관계에서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이용자 개개인의 문화접근성, 정서적 역량강화,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모델로 검증하여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검증한다는 의미를 갖는 한편, 2010년 67억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불과 4년 만에 2014년 732억으로 예산이 10배 이상 확대되어 온 통합문화이용권의 책임성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검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2014)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정책 목표를 '정서적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문화적 소외 및 박탈감 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합 강화', '문화이용 기회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강화'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접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세 가지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통합 강화 효과를 이용자의 인지에 근거하여 검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목표이자 기존 연구들에서 문화예술 및 여가 프로그램 영향으로 각각 논의되어 온 문화접근성 향상(정무성 외, 2014), 정서적 역량강화(이성희, 2013; 오승철,

2008; 양혜원, 2014), 사회통합감 향상(Gonzales et al., 2010; Catterall, 2009; Israel, 2009)에 대한 논의를 하나의 이론 모델로 통합하여 검증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문화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이용자의 사회통합으로 보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는 문화복지 정책의 다양한 정책목표들의 하나인 문화접근성 향상과 정서적 역량강화를 매개로 이들이 인지하는 사회통합감 향상에 기여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 연구는 소득, 고용, 사회 참여, 네트워크 등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의 객관적 조건을 통해 사회통합 혹은 사회적 배제 정도를 규정하는 전통적 사회통합 개념이 아닌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통합감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여,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이용 기간과 사회통합감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의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사회통합은 대체로 거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 혹은 정도에 근거하여 개념화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통합 담론에서는 자신이 사회에 얼마나 통합되어있는지, 다시 말해 자신이 사회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으며,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은 대체로 심리학 분야에서 다루어 저온 사회정체감 혹은 집단 자아존중감으로 논의되어왔으나, 최재성 외(2009)는 다양한 사회에의 소속감, 인정, 자부심, 만족감, 통합감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으로 이를 '주관적 사회통합감' (최재성 외, 2009)으로 개념화하였다. 개인정체성은 사람들이 자신을 개성을 지닌 독특한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라면, 사회정체성은 그가 속한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장미향,

성한기, 2007). 사회정체성은 자신이 사회적 집단의 일원이며 그러한 멤버십에 부여되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로부터 발생하는 자기 개념으로 정의된다(Taifel, 1978). 이러한 사회정체감은 한국형 사회정체감 척도개발 연구(성한기, 2001),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민 등의 문화적·심리적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정체감을 도입한 연구(정진경·양계민, 2004; 채정민·김종남, 2004), 차별이나 따돌림과 같은 관계적 측면의 배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정체감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연구(장미향·성한기, 2007) 등이 있다. 집단 자아존중감(김지경·박수애·이훈구, 1999; 한유와·정진경, 2007) 또한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 집단의 소속 성원으로서 얼마나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집단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있다고 인지하는지 등 사회적 차원(Crocker and Luhtanen, 1990)에서의 자아존중감을 내포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관적 사회통합감과 유사하다.

이 연구는 '주관적 사회통합감'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노동, 소비,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여, 건강, 주거 등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자신이 얼마나 통합되어 있다고 인지하는지'로 개념화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이용자들의 '주관적 사회통합감'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이를 대표적 문화복지 정책인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일련의 연구들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이용이 이용자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증명해왔다(Catterall, 2009; Gonzales et al., 2010; Israel, 2009; 최종혁 외, 2010; 유영주, 2013; 조현성 외, 2013; 정무성 외, 2014). Gonzales et

al.(2010)은 노인집단의 미술관 프로그램 참여가 참여자의 삶의 비전, 공동체 의식, 노후계획, 사회성 등 사회참여 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증명하였다.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은 청소년집단에서도 유사하게 청소년의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atterall, 2009; Israel, 2009).

국내 연구로는 최종혁 외(2010)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여가활동 향유를 위한 기회확대가 참여자의 정서적 충족과 대인관계, 긍정적 자아에 대한 역량강화, 공동체 활동을 매개로 사회통합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유영주(2013)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공동체 경험을 통해 본인 역할수용, 과업수행,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희망감, 사회에 기여 등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일관되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보고해왔다. 그러나 대체로 프로그램 시작 전후 값에 대한 비교, 비교집단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하거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사회통합, 사회참여, 정서적 역량 강화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편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청소년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 기간이 정서적 역량강화와 문화접근성을 통해 주관적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 모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논의를 보다 확대·정교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문화접근성

문화예술 활동으로부터의 소외는 상당부분 문

화예술 활동에의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발생한다(정무성 외, 2014). 접근성은 사전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4)을 의미하며, 이현주(1998)는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접근성을 '서비스에 대해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개념화하였다. Levesque et al.(2013)은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을 "어떤 곳에 다가가거나 도달하거나 들어가는 방법, 도달하거나 이용하거나 방문하기 위한 권리나 기회"로 정의하고, 접근성의 하위 차원으로 '접근가능성(approachabilit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비용적절성(affordability), 적절성(appropriateness)'의 다섯 요소를 제안하였다. 현택수(2006)는 문화접근성에 대해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보고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공공영역의 개입 필요성 또한 논의하였다(김정선, 2010; 현택수, 2006; 임학순, 2003). 이러한 선행연구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문화접근성은 거리, 비용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 경험 등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갖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문화접근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경제·물리·정보 등 문화접근성과 문화복지 향유에 대한 성취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해왔다(조현성 외, 2013). 강호진(2004)은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결정요인은 접근가능성, 비용능률성, 이용편리성임을 제안하며, 문화복지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주민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문화

예술위원회(2012)는 문화소외계층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병원이거나 시설에의 장기거주자, 도서산간지역거주자, 군인, 재소자 등을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측면에서의 문화소외계층으로 정의하고, 복권기금을 사용한 문화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은 이들의 문화예술활동 향유에, 다시 말해 문화예술활동에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무성 외(2014)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이용권 제공'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찾아가는 혹은 모셔오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통해 문화적 배제 극복에 기여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이용이 이용자의 문화접근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사회통합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가정한다.

3. 정서적 역량강화

이 연구는 정서적 역량강화를 문화접근성과 함께 또 다른 매개변수로 고려한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가 정서순화, 자신감, 자아성취, 정서적 웰빙, 불안 및 죽음, 심리적 스트레스 등 참여자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증명해왔다. 김가은(2012)은 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중년남성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성희(2013)는 무용공연활동에의 참여가 여성 노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침을, 오승철(2008)은 시설거주 노인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아존중감 나아가 죽음불안 감소에 기여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Choi(2001)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정서순화와 비행억제에 기여

함을 증명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정서적 역량강화(psychological empowerment)는 직무환경이나 노동력개발 영역에서 리더십이나 조직관리 전략의 결과요인으로, 그리고 조직몰입이나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논의되어 왔으며(Spreitzer, 1995; Liden et al., 2000),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역량강화의 한 방면으로 다루어져왔다(Zimmerman, 1995). 이에 대해, Zimmerman(1995)은 '정서적 역량강화'를 개인적 차원의 역량강화로서, 개인적 차원의 통제(personal control), 삶에 대한 적극성(proactive approach to life), 환경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of sociopolitical environment)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제안하며, 개인의 정서적 역량강화는 그 개인이 속한 조직과 사회의 구조와 절차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고 불안,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서적 역량강화'를 정의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문화예술활동 향유를 지원하는 정책이 이들의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

서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감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다음의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1,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용자의 문화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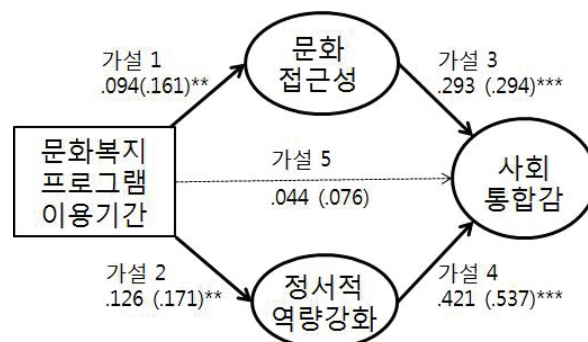
가설 2,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용자의 정서적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가설 3,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자의 문화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사회통합감은 향상될 것이다.

가설 4,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자의 정서적 역량이 강화될수록 주관적 사회통합감은 향상될 것이다.

가설 5,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용자의 주관적 사회통합감은 향상될 것이다.

가설 6, 저소득층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과 주관적 사회통합감 관계에서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p < .01, *p < .001

$\chi^2 = 333.156$, $df = 86$, CFI .954, TLI .936, RMSEA .071(95% CI: .061-.081)

주 1) 비표준화(표준화) 계수 값이 제시됨.

2)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 경로는 굵은실선,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보인 경로는 점선으로 표기함.

[그림 1] 연구모형 및 연구결과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복지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을 2014년 8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포함한 문화여가확대 지원사업은 사회적·지리적 및 특수한 여건 등의 한계로 문화여가향유의 욕구는 있으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계층 모두를 잠재적 대상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일차적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정무성 외(2014)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차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14년 8월 현재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로 이용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분포한다. 조사

대상자 수는 1,092로,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로 구분하고 각 거주지역별로 이용자 중 아동, 청소년, 장애인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17개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의 협조를 얻어 문화공연이나 행사 시 훈련을 받은 조사원이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차상위계층과 일반 기획사업 이용자 625 사례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 467 사례 중 무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모든 문항을 동일한 지표에 응답하는 등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54부를 제외한 41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정의 및 측정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을 의미하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2010년에 시작되었으므로 이용자들의 이용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에 분포한

〈표 1〉 이 연구의 문화접근성 척도

하위 차원	문항구성	내적 일관성
경제적 접근성	1)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 2) 문화강좌를 수강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 3) 자기개발 강좌(영어, 컴퓨터 등)를 수강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	.846
물리적 접근성	1) 지역사회에 불만한 공연이 있다. 2) 지역사회에 불만한 전시가 있다. 3) 지역사회 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 4)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 5) 지역사회 공공박물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 6) 지역사회 미술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 7) 지역사회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	.918 .948
정보 접근성	1) 이용가능 지역사회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본다. 2) 이용가능 지역사회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제공받는다. 3)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받고 있다.	.708
경험적 예술적 접근성	1) 나 또는 자녀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면 대부분의 전시나 공연을 비교적 잘 이해한다. 3) 문화예술활동 관람 내용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잘 한다. 4) 상상력이 풍부하다.	.920

다. 연구에 활용된 매개변수 중 문화접근성은 정무성 외(2014)가 개발하고 최상미·채성현(2015)이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화접근성 원척도는 4개 차원 24개 문항으로 구성되나 타당도 검증을 통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4개 차원 17개 문항으로 재구조화되었다. (1) 경제적 접근성(3문항), (2) 물리적 접근성(7문항), (3) 정보 접근성(3문항), (4) 경험적 접근성(4문항),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향유에의 접근성이 높다고 인지함을 의미한다. 차원별로, 경제적 접근성은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향유를 경제적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스포츠, 문화강좌, 자기개발 강좌를 향유할 여유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측정된다. 물리적 접근성은 지역사회 등 근거리에 다양한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향유를 위한 자원이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정도를 의미하며, '지역사회에 불만한 공연, 전시가 있는지, 다양한 지역사회시설 및

기관에서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을 향유하고 있는지' 등의 문항으로 측정한다. 정보접근성은 '문화예술 활동 향유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정도', 즉 정보부족으로 문화예술 활동 향유를 원하나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역사회 현재 향유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와 이에 대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제로 문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지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접근성은 '예술재, 경험재인 문화예술 활동의 특성상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접하여 향유를 경험적으로 편안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하며, 문화예술을 실제로 이해하고 즐기고 있는지로 측정한다. 원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49, 이 연구의 표본에서 검증된 내적 일관성은 .94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원척도의 각 하위차원별 내적 일치도는, .799, .920, .789, .914로, 이 연구에서는 각 하위차원별로 .846, .918, .708, .92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이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13)

	변수	빈도(명)	비율(%)		변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12	51.3	최종학력	무학	35	8.6
	여성	201	48.7		초졸	72	17.7
연령층	아동·청소년층(19세 미만)	57	15.2		중졸	88	21.7
	청장년층(19~60세 미만)	249	66.4		고졸	176	43.3
	노년층(60세 이상)	69	18.4		대졸 이상	35	8.6
거주지역	대도시	151	37.1	경제활동상태	비경제활동인구	152	39.0
	도농복합지역	214	52.6		정규직	31	7.9
	농산어촌	42	10.3		임시직	26	6.7
결혼여부	미혼	233	57.1		일용직	32	8.2
	기혼	75	18.4		실업상태	82	21.0
	기타(별거, 이혼, 사별 등)	100	24.5		기타	67	17.2
장애여부	장애	214	53.8				
	비장애	184	46.2				

상에서 설명한 문화접근성에 대한 구체적 측정변수는 <표 1>과 같다.

정서적 역량강화 척도는 정무성 외(2014)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개 차원하에 행복감, 우울감, 외로움, 자살충동을 묻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역량강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표본에서 검증된 내적 일관성은 .909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관적으로 인지된 사회통합감이다. 주관적 사회통합감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에 통합되었다고 느끼는 감정과 소속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통합배제연구단에 의해서 개발되고 최재성·최상미(2014)에서 그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원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1, 이 연구의 표본에서 검증된 내적 일관성은 .912이다. 정서적 역량강화와 인지된 사회통합감의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표 3>에 제시하였다.

3. 자료분석

이 연구는 이론모형 검증을 위해 Anderson and Gerbing(1988)이 제안하는 2단계 접근법을 따라,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되면, 다음 단계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결측치 처리를 위해서는 최대정보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 FIML)을 활용하였다²⁾. 일련의 분석은 SPSS 18과 AMO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3> 측정모형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문항-요인간 요인적재량
문화접근성	경제적접근성	.756
	물리적접근성	.886
	정보접근성	.771
	경험적접근성	.800
정서적 역량강화	이전보다 행복한 마음이 든다	.786
	우울한 마음이 감소하였다	.913
	외로움을 덜 느낀다	.889
	죽고 싶은 생각이 덜 든다	.774
사회통합감	우리사회에서 존중 받고있다	.848
	우리사회에서 의미있는 존재이다	.843
	우리사회에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860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723
	우리사회에서 나는 인격적 대우를 받는다	.781
	나는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696

$\chi^2(p) = 313.852(.000)$, $df = 74$, $CFI = .942$, $TLI = .917$, $RMSEA = .087(95\% \text{ CI: } .077 \sim .097)$

IV. 연구결과

1. 분석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통합 문화이용권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413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은 모두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로 남성 51.3%, 여성 48.7%였으며, 연령층은 아동청소년층(19세 미만) 15.2%, 청장년층(19~60세 미만) 66.4%, 노년층(60세 이상) 18.4%으로 구성된다. 거주지역은 대도시 37.1%, 도농복합지역 52.6%, 농산어촌 10.3%였으며, 최종학력은 무학 8.6%, 초등학교 졸업 17.7%, 중학교 졸업 21.7%, 고등학교 졸업 43.3%, 대학교 졸업 이상 8.6%로 구성된다. 결혼여부는 미혼 57.1%, 기혼 18.4% 이혼 등 기타유형이 24.5%이었다. 경제활동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 39.0%, 정규직 7.9%, 임시직 6.7%, 일용직 8.2%, 실업상태 21.0%, 기타 17.2%로 나타났다. 장애여부로는 장애인 비율이 53.8%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학력, 높은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 높은 장애인 비율의 특성을 보였다.

2. 측정모형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잠재변수로 이루어진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CFI .942, TLI .917, RMSEA 값 .087(95% CI: .077~.097)로 전반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들의 해당 차원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모두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최소 .696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인 문화복지서비스 이용기간, 문화접근성, 정서적 역량강화, 사회통합감에 대한 기초분석, 상관관계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기대한 바대로,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은 평균 3.07년(표준편차=1.08), 문화접근성 정도는 평균 2.93점(표준편차=0.86), 정서적 역량강화는 평균 3.64(표준편차=.082), 주관적 사회통합감은 평균 3.54(SD=.077)점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의 주요 측정변수들에 대한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 본 결과 왜도는 -.224에서 -.033, 첨도는 -.550에

<표 4> 기초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 수(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왜도	첨도	상관관계			
					1	2	3	4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 (년)	3.07 (1.08)	1.00~5.00	-.179	-.550	1.00			
문화접근성 (5점 척도)	2.93 (.086)	1.00~5.00	-.033	-.201	.123*	1.00		
정서적 역량강화 (5점 척도)	3.64 (.082)	1.00~5.00	-.196	-.212	.163**	.389**	1.00	
사회통합감 (5점 척도)	3.54 (.077)	1.00~5.00	-.224	.157	.202**	.385**	.601**	1.00

*p<.05, **p<.01

- 2) 이 연구는 모형 평가를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홍세희(2000)는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는 간명성을 고려해야 하고 샘플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CFI, TLI(NNFI), RMSEA를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Hu and Bentler(1999)는 좋은 적합도 기준으로 TLI와 CFI 모두 .95 이상을 제안한 반면, RMSEA 값은 <.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10이면 나쁜 적합도(poor fit)로 본다(Browne and Cudeck, 1993).

서 .157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정상분포 기준을 만족하였다.

3. 연구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를 매개로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이 연구의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CFI .954, TLI .936, RMSEA .071(95% CI: .061-.081)로 전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는 받아들일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첫째, 가설 1을 지지하며,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문화접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61$, $p=.004$).

둘째, 가설 2를 지지하며,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정서적 역량강화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1$, $p=.002$).

셋째, 가설 3을 지지하며, 문화접근성이 사회통합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94$, $p=.000$).

넷째, 정서적 역량강화가 사회통합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4를 지지하였다($\beta=.421$, $p<0.001$).

다섯째,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사회통합감에 대한 직접적 정적 영향을 가정한 가설 5는 기각되었다($\beta=.044$, $p>.1$).

4. 간접효과 검증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과 사회통합감 간의 관계에서 문화접근성 및 정서적 역량강화가 갖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의 간접 효과, 다시 말해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이용자의 사회통합감 향상에 직접적이기보다는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가설 6을 지지한다(<표 6> 참조). 또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과 사회통합감 사이에서 정서적 역량강화가 문화접근성보다 두 배 정도 큰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사회통합감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문화접근성이라는 환경적 요인보다 정서적 역량강화라는 개인적 요인을 매개로 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연구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연구 가설	비표준(표준)화 회귀계수	S.E	C.R
연구가설 1: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 → 문화접근성	.094(.161)**	.032	2.882
연구가설 2: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 → 정서적 역량강화	.126(.171)**	.040	3.131
연구가설 3: 문화접근성 → 사회통합감	.293(.294)***	.049	5.977
연구가설 4: 정서적 역량강화 → 사회통합감	.421(.537)***	.044	9.4621.
연구가설 5: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 → 사회통합감	.044(.076)	.027	.621

$\chi^2=333.156$, $df=86$, CFI .954, TLI .936, RMSEA .071(95% CI: .061~.081)

〈표 6〉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의 간접효과 검증: 부스트래핑 분석 결과

매개변수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의 간접효과	p	Lower Bounds	Upper Bounds
문화접근성	.064 (.051)**	.008	.025	.111
정서적 역량강화	.117 (.077)**	.004	.058	.170

**p < .01

V.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를 매개로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통합감 향상을 위한 기제의 하나로서 문화복지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413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길수록 문화접근성 및 정서적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매개로 이용자들의 사회통합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지지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문화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문화접근성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접근성 차원에서 검증한 선행 연구의 결과(강호진, 2004; 조현성 외, 2013; 정무성 외, 2014)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통합문화이용권의 효과성을 이용자의 문화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검증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향

유에 있어서 경험하는 경제적·정보적·물리적·경험적 제약을 완화하는 기능을 함을, 다시 말해 문화예술 활동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이어서 문화접근성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문화접근성이 사회통합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접근성이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하며(정무성 외, 2014; Israel, 2009; Catterall, 2009), 저소득층의 경제적·정보적·물리적·경험적 문화접근성이 향상될수록, 다시 말해 문화예술 활동 향유를 위한 문턱이 낮아질수록 사회에 통합되었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사회적 취약계층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둘째,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정서적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정서적 역량강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이용자의 스트레스 경감과 자살사고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등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김가은, 2012; 최종혁 외 2010). 즉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우울감, 외로움, 자살사고 감소와 행복감 증가 등 이용자의 정서적 역량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어 정서적 역량강화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정서적 역량강화 또한 사회통합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활동 향유가 이용자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경감하고, 행복감, 자아존중감 향상 등 정서적 역량강화를 이끌고 이는 다시 사회통합감을 증진시킴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사회통합감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과 사회통합감 관계에서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가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과 사회통합감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할수록 사회통합감 향상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문화접근성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정서적 역량강화라는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통합감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즉 문화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저소득층의 사회통합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지만,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가구당 문화예술 관련 소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연 1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에의 경제적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어 지역의 문화재단,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의 담당자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지역 문화공연 등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장애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서비스'나 '모셔오는 문화복지 서비스' 등의 기획사업을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접근

성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축적되고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과 문화 향유법을 익혀 점진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도록, 다시 말해 경험재인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경험이 축적하면서 예술적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정서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적 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가 높을수록 사회통합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어 새로운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사회통합감에 기여함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제로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둘째, 이 연구는 사업 시행된 지 5년 만에 10배 이상 예산이 증가하면서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나아가 문화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작게는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 크게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즉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명함으로써 문화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확대와 정책수립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한다.

셋째, 문화예술을 통해 심리적 만족이나 정신적 고양을 느끼기 위해서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물리적, 정보적, 경험적 문화접근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문화복지 정책으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이 연구결과에서 문화접근성이 사회통

합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을 통한 정서적 역량강화 또한 사회통합감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문화재단, 복지관 등이 협력하여 다차원적인 문화접근성 향상과 정서지원 통합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부터, 문화예술향유는 경험재라는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며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문화복지 정책 수립 시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아동청소년 집단에게 문화예술활동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기관에서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정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진 것처럼, 문화접근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역량강화가 이용자의 사회통합감을 향상시키고 있음으로 기존의 영화관람, 공연관람 중심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소시오 드라마, 장애인 악기 합주공연 등과 같은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정서·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갖는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소외계층을 둘러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로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의 확대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비해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이 분야의 기초연

구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기존 문화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 공급자 측면에 머물러 있던 문화복지 프로그램 효과성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기간, 문화접근성, 정서적 역량강화, 사회통합감의 관계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이용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세부 집단별 효과적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면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신욱, 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 9~32.
- 강신욱·김안나,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호진, 2004,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8(2): 23~40.
- 구혜영, 2004, “지역사회의 문화복지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4: 249~281.
- 김가은, 2012, “무용참여가 중년남성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교성·노혜진, 2008, “사회적 배제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4: 133~163.
- 김민영·백승주·금현섭, 2011, “기관경쟁과 이용자선택이 사회서비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대상 대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4): 153~176.
- 김민정·송주미, 2004, “청소년 문화복지 지역격차 연구: 충

- 청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 42(11): 61~83.
- 김안나·노대명·김미숙·신호성·홍인옥·김태완·강민희·이소정·원일·윤필경·유정예,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전경옥·홍기원, 2013,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의 역할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6(1): 81~107.
- 김정선, 2010, “무엇으로부터 소외인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미술교육논총』, 24(1): 153~175.
- 김지경·박수애·이훈구, 1999,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지위가 집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3(1): 53~64.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 간 비교연구: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 _____, 2014, 『통합문화이용권 안내: 문화누리카드 사업설명회 자료』.
- 배미애, 2007,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지역 차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24(1): 151~191.
- 서우석·양효석, 2013, “문화적 박탈감을 통해 살펴본 문화복지대상 범위 연구”, 『문화정책논총』, 27(1): 165~197.
-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15(3): 149~184.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 178~208.
- _____, 2013, “문화복지쟁점을 통해서 본 한국의 문화복지 정책: 특징 및 한계 그리고 대안”, 『비판사회정책』, 8: 149~184.
- 양혜원, 2014, “단계적 분석을 통한 문화복지정책의 효과”, 『2014년 한국문화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오승철, 2008, “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용호성, 2012, “문화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전망”, 『문화정책논총』, 26(1): 99~124.
- 유영주, 2013, “문화복지서비스 성과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비스이용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3): 271~300.
- 이성희, 2013, “한국무용공연활동이 여성노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1998, “사회복지이용시설 접근성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연구』, 12: 111~129.
- 임학순, 2003, “문화콘텐츠 접근성, 그 의미와 정책과제”, 『예술경영연구』, 3: 131~147.
- 윤성호, 2005, “한국노동빈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학회』, 21(1): 149~176.
- 장미향·성한기, 2007,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1): 77~87.
- 장지연·양수경, 2007, “승진대기기간의 성별격차와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41(4): 104~127.
- 정무성·최상미·양혜원·한정원·임유진·전재현·김경옥·김도영·이현용·위세아·박은지, 201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정진경·양재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조남경, 2013, “사회복지의 문화적 토대, 복지태도 그리고 문화적 문맥: 사회복지정책연구에 있어 세가지 문화적 접근의 현황과 과제”, 『비판사회정책』, 39: 235~259.
- 조현성·정현일·김희수·박종웅·이현서, 2013, 『2013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채정민·김종남, 2004, “북한 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41~63.
- 최상미·채성현, 2015, “저소득 노인의 인지된 문화접근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9: 417~447.
- 최옥채, 2007,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복지의 개념화: 문화의 용례에 따른 해석학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 87~106.
- 최재성·최상미, 2014,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미발간.
- 최재성·강영숙·김진옥, 2009,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309~341.
- 최종혁·이연·유영주·안태숙, 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

- 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한국사회복지학』, 62(1): 291~316.
- 최종혁·유영주·박동진, 2015, “사회복지관에서의 문화복지 서비스 인식 연구”, 『문화정책논총』, 29(1): 103~13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 수요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6.
- 한유화·정진경, 2007, “2 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7~131.
- 현택수, 2006,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6(2): 101~122.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2): 161~177.
- Anderson, J. C. and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urchardt, T., Le Grand, J. and Piachaud, D., 2002, “Degree of Exclusion: Developing a Dynamic, Multidimensional Measure”, Hills, J., Le Grand, J. and Piachaud, D.(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radshaw, J., Williams, J., Levitas, R., Pantazis, C., Patsios, D., Townsend, P., Gordon, D., Middleton,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Proceeding paper at the 26th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Income and Wealth, Cracow, Poland, 27 August to 2 September.
- Browne, M. W. and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and Long, J. S.(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36~162, Beverly Hills, CA: Sage.
- Catterall, J. S., 2009, *Doing Well and Doing Good by Doing Art: A 12-year Longitudinal Study of Arts Education—Effects on the Achievements and Values of Young Adults*, Los Angeles: I-Group Books.
- Choi, Eengyu, 2001, “A Study of Emotional Purity and Determnce Adolescent Delinquency through The Program of Art Therapy Training”, YUI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CA
- Crocker, J. and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0~67.
- Gonzales, E., Morrow-Howell, N. and Gilbert, P., 2010, “Changing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s Older Adults”, *Gerontology and Geriatrics Education*, 31(3): 220~234.
- Hu, L. Z. and Bentler, P. M., 1999, “Cut 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Israel, D., 2009, *Staying in School: Arts Education and New York City Graduation Rates*, New York: The Center for Arts Education.
- Liden, R. C., Wayne, S. J. and Sparrowe, R. T., 2000, “An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Job,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Work Outco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3): 407~416.
- Robinson, P. and Oppenheim, C., 1998,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 Submission to the Social Exclusion Unit*,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Spreitzer, G. M.,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place: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5): 1442~1465.
- Tajfel, H.(ed.), 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Zimmerman, M. A.,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581~599.

원 고 접 수 일 : 2015년 5월 22일
1차심사완료일 : 2015년 8월 24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5년 11월 2일